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로 36길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신부님
편 집: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 편집실

수령 1,200년 홍송(紅松) 고통과 환희 십자가 되어 우리 성전에 서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2018년 8월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교우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 봉헌 축복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본당 주임(이계철, 라파엘)신부님은 봉헌 축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상은 수난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이 상징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령 1,200년이 되는 캐나다 산 홍송(紅松)으로 1,000여 년간 고통과 환희의 자연섭리를 체험한 재질을 수난의 고통이 없이 환희의 부활을 이루지 못하는 복음 말씀을, 한 조각각의 신심으로 본당에 우뚝 서게 되었다.' 고 말씀 하셨다.

이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은 본당 대형 고평이 없어서 여러 신자들의 자발적 봉헌과 작가(김창범, 라파엘)가 손수 조각칼로 60여 일간 고통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운 여름철 냉방기도 없는 샌드위치 판넬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다.

특히 수년간 건조한 이 홍송(紅松)은 원지름이 2미터가 넘는 원목을 나무의 재질이 원심은 무르고 변형될 우려가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고 날카로운 조각칼이 무더질 정도로 단단한 나이테가 촘촘한 껍질 쪽을 제재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을 봉헌해주신 신자들의 성명과 세례명을 뜻깊게 된 명패로 십자가상 뒤편에 부착하여 몇 세기를 흘러도 변형되지 않게 하였다.

현재 천정 조명등이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비추지 못하여 작가가 표출한 상이 나타나지 않아 곧 조명등과 천정 스크린판 까지 손을 보아야 한다.

조명등이 손을 보면 우리 시흥4동 성당 어린이와 젊은이, 중년과 노인들까지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 봉헌 축복식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 많은 교우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성가대원들의 합창과 장구반주로 봉송한 축복기는 영광의 환희에 차 있었다. 이어서 남성구역과 여성구역에서 마련한 약간의 맥주와 음료수를 즐길 수 있는 친교와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다.



십자가상 봉헌	
김길순 수녀님	김영동 세바스티안노
김성오 스테파노, 김현오 가릴로, 김진오 베오	김수자 엘리사벳
김수철 식스토, 박재현 아델라	김숙자 아녜스
김영준 바르톨로	김영식 베네딕토
김영희 마리아	김영희 골롬바
김정환 스테파노	김학자 요주아녜스
류해승 베드로	박노을 안나
박범진 프란치스코	박상욱 도미니코, 박형욱 아우구스티노
손영미 베로니카	손영숙 마리아
송현철 미카엘	안성준 루치아노
양병호 토마스	우영희 로사
유정숙 소피아	윤지은 바오로
윤동진 베드로	이임복 안나, 안정현, 이진영, 안지은, 안희현
이현숙 비아	장영숙 대레사
정화숙 도미니카	조동희 도마
최윤정 안젤라	최종순 로사리아
11대 사목협의회	주임신부 이계철 라파엘
2018년 8월 15일 봉헌	